순천 투자유치 닻 올랐다…5개 기업 8000억원 규모

㈜포스코와이드와의 업무협약…휴양콘도미니엄 개발

500여 명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돼

순천시는 23일 ㈜포스코와이드와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4일 지식정보문화기업인 ㈜로컬앤컴퍼니, 4월 ESG에너지 저장시설 제조업체 A기업까지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통해 투자유치에 나선다.

순천시에 따르면 ㈜포스코와이드와의 업무협약은 포라이즌(구 승주CC)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으로 29만7000㎡(9만 평)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숙원사업인 체류형 힐링 관광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미엄 레저타운은 비즈니스, 힐링, 레저가 결합된 체류형 숙박시설로 웰니스를 중시하는 MZ세대 성향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200여 명의 고용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가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B기업과 고용인원 130여 명, 투자비 약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MOU)도 준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 대표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이 잘 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일사천리 기업 섬김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노 시장의 광폭 행보는 3년 넘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반등시킬 절호의 기회로 2023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 민생과 경제회복의 강한 의지가 담긴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중마장애인복지관' 선정

광양시는 중마장애인복지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한 '202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 적응 훈련 등 다양한 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공모 유형은 △직업재활센터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가)형 △직업 재활 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등 3가지 유형으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가)형 유형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1명, 훈련지원인 4명의 인건비와 훈련프로그램 운영비, 훈련수당, 홍보비, 비품비 등을 포함해 최대 1억53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현실적인 직업재활서비

중증장애인 취업·자립 현장 중심 직업훈련 제공

스를 제공해 복지관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이 실제적인 취업 현장을 경험하여 일반고용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직업생활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마장애인복지관은 광양시에서 총사업비 73억74백만원(국비 3억원, 시비 70억74백만원)을 투입해 2020년 10월 개관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구인·구직상담, 취업 알선, 고용지원, 취업 후 적응 지도, 업체 발굴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군,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나선다

515개 마을대상 빈집 데이터 구축…체계적인 관리

고흥군은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515개 마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군에서 직접 수행하며, 16개 읍·면 조사요원을 고용해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거주 등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된 주택이다. 공동주택 및 미입주 주택 등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등을 근거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선별해 마을이장 협조 하에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관리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활용의사 등 현장조사를 통해 매각, 수리, 임대, 철거 등을 소유자에게 권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농촌 경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해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친환경 대체소재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앞장'

여수시가 친환경 대체소재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채운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까지 500년 이상이 걸리고 매립하거나 강과 바다로 유입될 경우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에 시는 물, 소금, 전분 등 친환경 대체소재 아이스팩 사용 권장을 위한 캠페인 추진 및 홍보물 배부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 등의 아이스팩 구입비용 절감뿐 아니라 아이스팩의 매립·소각량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은 지구환경을 살리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보성군, 한우농가 대상 축산 맞춤형 종합 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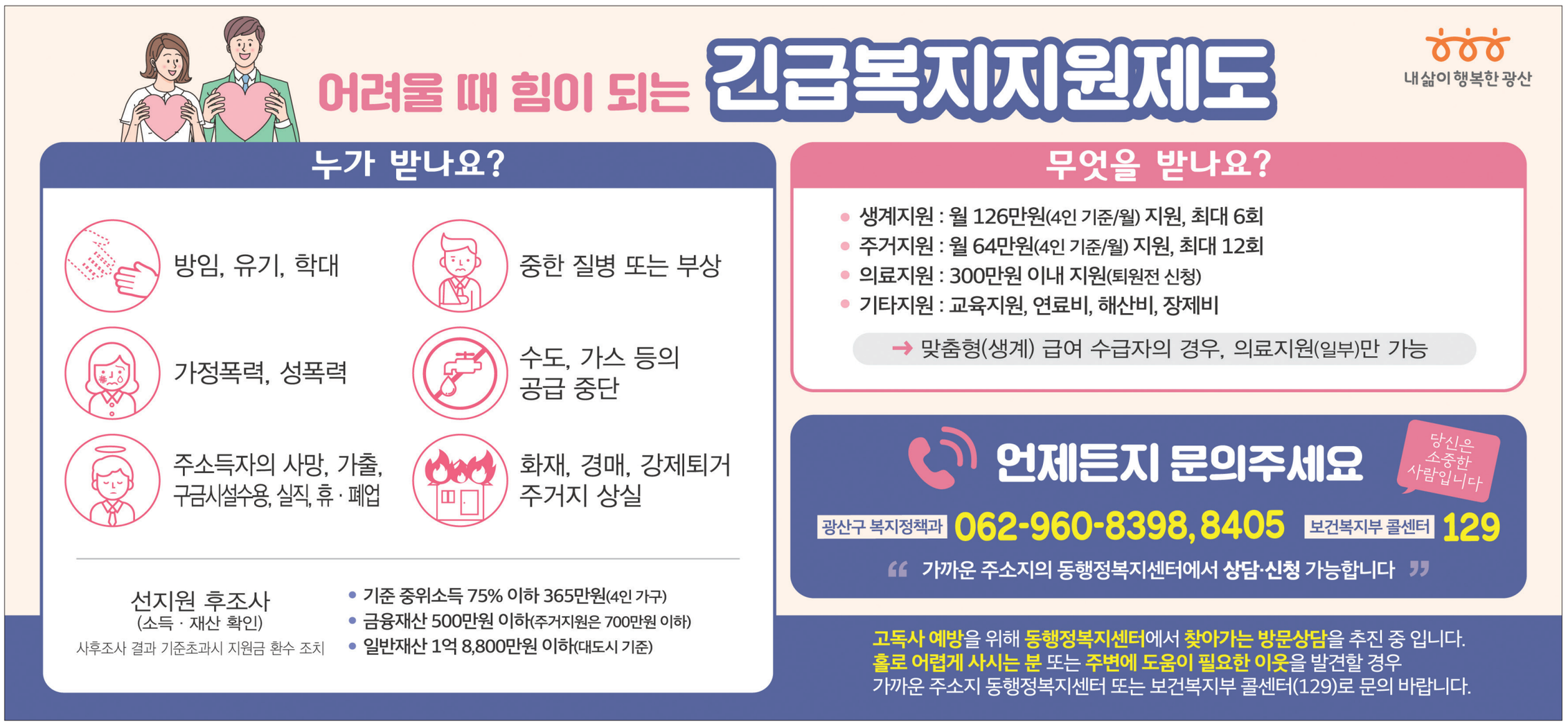
한우개량 및 번식 기술 향상으로 축산위기 돌파구 모색

보성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해 지역 한우농가 4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종축개량협회 최임수 전남광주본부장, 전 국립축산과학원 백광수 연구관 등을 초청해 강의 및 심층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암소 선발 및 씨수소 정액 선택 등 한우 개량과 임신우 번식 관리, 발정 동기화, 인공 수정 기술 등 한우 번식에 관한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컨설팅 이후에도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번식 및 사양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석한 농가 김 모 씨는"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개량을 통한 고능력 한우 생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컨설팅을 통해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퇴비 부숙도 검사, 한우 임신 판단 키트 지원,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등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